

# 이데올로기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최근 우리학계에도 포스트모더니즘논의가 활발하다. 객관화된 과학, 보편적 도덕과 법을 토대로 한 사회, 자율적 예술관을 모태로 출발한 모더니즘운동은 그 흐름상 철저히 계몽주의적이었다. 보편적 이성을 근간으로 새로운 사회를 꿈꾸던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역사성과 진보개념을 발견하면서 낙관주의적 세계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모더니즘은 그 반란의 씨를 그 자신 안에 담고 있다. 다니엘 벨이 주장하듯,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이념적 밑바탕이었던 모더니즘은 그 경제체계와 상충된 문화의 특성을 지닌다.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 미디어문화의 등장, 그리고 대중 민주주의의 등장은 모더니즘에 대한 근원적 반성을 요구한다. 다양한 생활 방식은 과거 우리가 누렸던 사고방식의 새로운 조망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마단 사립의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임현규 옮김, 인간사랑)은 포스트모더니즘론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된다.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상과 주제를 분명히 정의 내리기가 어려움을 실토히면서도, 그 나름대로 논의의 대상과 주제를 좁혀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그의 주된 관심은 이성중심주의적 철학관에 반대해 데리다, 18세기 역사를 바탕으로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파헤친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조건들을 탐구한 료파르이다. 흔히 포스트구조주의자로 분류되는 이들 철학의 특징은 서양 근세철학의 지배적 주류였던 현상과 본질의 구분, 본래성과 비본래성의 구분, 기표와 기의의 대립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하고 보다 다원주의적 세계상 정립에 앞장선다.

아마도 이 책에서 두드러지는 점 중의 하나라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닌 반마르크스 경향을 뚜렷하게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철학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그람시 입장에 동조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논의 자체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투쟁맥락에서 파악될 필요성을 역설한다. 단순화시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마르크스의 낙관주의적 진보관을 거부한다. 역사의 진보성을 토대로 한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은 마르크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기반을 얻기보다는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비판없는 서구이론의 수용은 맹목을 낳는다.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도 예외일 수는 없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그러나 서양

이론의 소개서를 접하면서 늘 아쉬운 점은 서구이론의 한국적 접목내지 수용이 전적으로 독자의 상상력과 판단력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 나영옥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2동 580번지

### 「누가 잠자는 숲속의...」

현대과학문명의 발달이 보다 편리한 문명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문명의 급격한 진전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어렵다. 산업구조의 변화, 개인윤리의식의 대두는 농경제 사회에 적합했던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깨뜨리고, 보다 단순화된 핵가족화를 초래했다. 별로 멀지도 않은 겨울밤, 밤, 고구마를 화롯불에 올려놓고 구수한 옛이야기나 귀신이야기를 들었던 시절은 먼 옛날처럼 느껴지고, 그때 들었던 옛이야기나 동화도 구전방식이나 구설내용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옛 생각을 더듬으면서 모처럼 읽게 된 「누가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가」(이림 펴서 지음, 이진우 옮김, 철학과현실사)는 기대치와는 달리 쉽게만 생각했던 동화읽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저자 스스로의 말처럼 도대체 이런 동화읽기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하는지 궁금하게 된다. 그저 듣기에 좋은 이야기로 인식돼 온 동화들이 왜 이처럼 전문적 용어로 분석되어야 할까? 도대체 동화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도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저자는 一義의 동화 읽기를 거부함으로써, 마치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했던 단순한 인과적 주제파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동화는 해석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풍자내용과 그 심오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바로 동화가 우리의 사고 속에서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무한한 힘으로 간주된다.

이런 충격적 접근방식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용하고 있는 동화텍스트 분석의 틀이 기존의 철학사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은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컨대, 그가 제시하고 있

는 기본적 분석틀, 즉 텍스트해석은, 정신분석학,역사적 유물론, 그리고 희망의 원칙(블로흐) 등은 바로 우리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가정들이며, 지금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고, 이러한 성인세계의 전문적 용어의 남용은 자칫 동심의 세계가 갖고자 하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제한, 규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제 한 시대의 주인이 되어야 할 우리 성인들이 동화의 본래의 모습과 그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자각할 때, 동화의 전달자로서 역할은 충실히 수행되며, 보다 나은 자기정체와 우리사회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함성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 16단지 7동 707호

### 「장자와 모택동의 변증법」

올바른 자기파악은 그가 속한 전통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제로 한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과학도 실제로 그 시대, 그 사회의 반영임은 하나의 상식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근세 중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이런 상식적 입장을 반증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오랜 화이사상에 젖어 있던 중국이 ‘과학·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서구사상을 도입하면서부터 전통은 거부되기 시작했고, 평등주의 원리에 기반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 그 나름대로 중국 전통사회를 개조하려 했던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는 표면상 전통과의 단절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근세 중국사회의 변혁은 이렇듯 그들의 전통유산과 단절할 때만 가능한 것일까? 과연 과거와 현재는 아무런 연관없는 불연속점일까? 이런 물음에 대한 무관심은 현재 또는 과거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기반에 대한 반성을 거부할 수 있다.

양재혁교수의 학위논문인 「장자와 모택동의 변증법」(이론과실천사)은 위의 물음을 염두하면서, 중국 현대철학의 유산을 되새김질한다. 중국고전에 대한 ‘해석학적 해설’론은 중국현대사상이 고전사상과의 결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사상적 뿌리가 그들 전통사상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현대사상은 완전한 전통과의 단절이 아닌, 서구의 변증법이론을 통한 중국고전철학의 새로운 해석에 의존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결고리는 중국자연사상을 대변하는 道의 이해이다. 저자는 道의 본래 뜻이 “이성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고 공자, 장자, 그리고 모택동의 道의 개념이해를 살피고 있다.

자연현상의 형이상학적 법칙으로 파악된 道는 공자에게는 군자가 알아야 할 절대적 지식으로, 따라서 군자가 행할 덕치국가의 근본원리로 파악되고, 장자에게는 우리모두가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모형으로 자연적 도가 대두된다. 이러한 정적 자연관은 모택동에 의해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된다. 변증법사상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모택동은 자연의 운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모순법칙으로 보고, 이 모순법칙이 자연법칙, 즉 道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통적 사상의 기반인 총체적 파악이 모택동사상이 갖는 독특성이고, 이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저자의 주된 의도인 듯하다.

전통과의 연결을 통한 자기이해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듯하다. 왜냐하면 서구이론의 무분별한 수용보다는 전통과의 연결을 통한 보다 더 창조적 사고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 송정오

경기도 광명시 광명 4동 158-384 정영연립 B동 201호

###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노동운동과 노동자 문화」는 문화분석과 여성사 복구를 통해 노동자들이 어떻게 집단적 의식을 형성했으며 노동운동생성에 어떤 형태로 작용했는가를 서술한 책이다.

서양사연구자는 ‘스스로의 학문적 관심을 이땅의 현실적 문제들과 어떻게 접맥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위해 우리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대안을 다른 사회의 경험으로부터 진지하게 유추해보는 모색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대전제이다. 그리고 필자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이 책속에서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제1부는 독일 사회민주주의 운동내에서 가장 큰 교육운동조직이었던 자유민중극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독일노동운동 해석의 중점이 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부르주아화’를 다룬 것이다.

제2부는 두편의 논문으로 되어 있다. 우선

「억압적 국가와 독일노동계급의 형성」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의해 뒤떨어진 독일에서의 노동운동 생성과정과 거기에서의 '강압적인 국가'의 영향을 다루었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그 조직적 전개」에서는 우리 사회 기층여성의 조직화와 운동의 조직적 틀을 둘러싼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독일 여성 운동사를 조직론의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제3부는 한국현실에 초점을 맞춘 다소 시사적인 글로써 「자본주의와 그 문화」에서는 문화를 통해 나타난 자본주의의 본질을 규명한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노동세계」에서는 1970년대의 한국여성노동자들이 자본주의 문화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어떻게 스스로 집단적 의식을 형성했으며, 이것이 노동운동의 생성에 어떤 형태로 작용했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인 그들의 '문화'를 분석의 틀로 삼음으로써 필자는 보다 실제적인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역사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근간 지나치게 경도되어왔던 경제결정론적 시각과 편협했던 역사연구의 범주,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분석에 있어서 불철저함 등에 대한 반성과 노력으로서, 이 책 「노동운동과 노동자 문화」는 전문적인 학술서의 역할과 한국의 현실에 대한 시사서로서의 역할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병수

대전시 서구 괴정동 53-28

### 「양들의 침묵」

사회가 복잡해지고 대인관계가 까다로워질수록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코너로 몰리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해마다 정신이상으로 판정받는 사람들이 거뜬거뜬 늘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과, 그 절망감은 책 속에서도 피어난다. 숨막힐듯한 전율을 남겨주는 책이 하나 있다.

공포 추리소설을 즐겨 쓰는 토마스 해리스의 소설 「양들의 침묵」(이윤기 옮김, 고려원)은 읽는 동안 내내 침묵하게 만들고, 읽고 난 후에도 두려움 때문에 또 침묵하게 만든다. 읽는 동안, 그리고 읽고 난 후 한동안을 온통 사로잡는 힘을 가졌다.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오랫만에 접하는 한편의 책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여형사가 있고, 범죄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적인 범죄 심리학자가 있고, 정신 이상자인 범죄자가 있다. 연쇄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고전적인 추리물같지만 그 진행 방향이 전혀 상상을 불허한다.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사건들과-끔찍한 너무도 끔찍한- 설명되지 않는 이유들로 온통 줄거리가 짜여져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단 독자들을 쉽게 놔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리소설 작가로서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전혀 그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독자들을 속이고 있으며, 이미 지나쳤지만 이미 행간들 속에 그 결과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또한 충분히 논리적이다. 한마디로 놀라운 작가이며, 놀라운 책이다.

그러나 공포 속에 남는 풀어야만 할 의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도대체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술한 살인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들이 없다. 그저 죽이고 그저 일을 벌이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갖는 깊은 절망과 허무가 이토록 짙게 배어나올 수가 없다. 오랫동안 간직돼온 인간들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남는 것이 없어서 허무하다. 이런 허무조차도 어찌면 작가의 의도에 의한 것일런지도 모르겠지만.

「양들의 침묵」은 영화화되어서도 가히 센세이션할 성공을 거두었다. 문자매체와 영상매체를 비교해볼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억에 남는 한편의 책이다.

박환식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동명APT. 204동 108호

아직도  
대지작업을 손수 하시나요?  
저희 편집부에 맡겨주시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원고만 주시고  
책을 받아보세요!

매킨토시로  
대지작업 없는  
신속한  
전자출판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입력·편집·제판·인쇄를  
한곳에서 처리

### 시설내용

- |                 |                     |
|-----------------|---------------------|
| <b>편집부</b>      | <b>인쇄부</b>          |
| ▶ 전자출판 시스템      | ▶ Miller 2칼라 2대     |
| ▶ 매킨토시 전품목 설치   | ▶ Rolend 4칼라 1대     |
| ▶ 유능한 편집인       | <b>윤전부</b>          |
| <b>제판부</b>      | ▶ 4×6전자 8색기 2대      |
| ▶ 단색스캐너 설치      | <b>코팅부</b>          |
| ▶ 원색제판의 모든 것 해결 | ▶ 전자동 라미네이팅(무광, 유광) |
|                 | ▶ 전자동 U,V 코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17  
전화 704-8384~5 팩스 717-7311